



즉시 배포용: 2015년 11월 12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새로운 **REGENERON** 확장으로 300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발표하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생명과학 &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뉴욕주 차원의 벤처캐피탈 비즈니스 대회에 5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Regeneron Pharmaceuticals, Inc.가 연구개발 능력을 올리기 위해 회사 규모를 더욱 확장한다고 발표하는 자리에 Tarrytown에 있는 본사의 새로 건립한 두 건물을 그랜드 오픈하는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Regeneron은 현재 100만여 평방피트의 부지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Tarrytown 캠퍼스를 더욱 확대해나가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주지사는 또한 바이오테크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생명공학 분야 창업회사들을 위해 새로 500만 달러의 벤처캐피탈 경쟁의 시작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이 사업을 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세 확장은 Regeneron 같은 기업에 대한 뉴욕의 지원이 뉴욕주 커뮤니티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공학기술 분야가 앞으로 뉴욕에서 계속 번영을 구가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뉴욕은 1988년 이후 Regeneron의 고향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Tarrytown 실험실에서 이뤄진 많은 과학적인 발전은 네 개의 인증된 치료법과 중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잠재적인 약품을 제공하는 중요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라고 **Regeneron의 사장 겸 CEO인 Leonard S. Schleifer, M.D., Ph.D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새로운 요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나가면서 뉴욕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 새로운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확장 사업은 최소 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험실 및 사무 공간 및 최대 400대의 주차면을 가진 주차장까지 포함하는 최대 192,000 평방피트의 건물을 시공할 것입니다. 뉴욕 주요 경제개발기관인 Empire State

Development는 이 사세 확장을 위한 많은 옵션을 가진 이 회사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Excelsior Jobs Program 세금공제를 지원할 것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는 또한 최대 1,020만 달러의 Excelsior Jobs Program 세금 공제 혜택으로 현재 Regeneron가 완공한 확장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곳 부지에 들어서려는 두 개의 신축 건물에 1억5,000만여 달러를 투자했고 이곳 부지에 5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신축 건물은 300,000만여 평방피트의 사무실과 실험실 부지를 추가하여 Regeneron의 본사를 확장하고 이 회사가 이 뉴욕 부지에서 새로 5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Tarrytown 캠퍼스 외에도, Regeneron은 Rensselaer 카운티를 배경으로 Capital Region에 있는 IOPS(Industrial Operations and Product Supply) 시설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Regeneron은 뉴욕주 여러 곳에서 945명의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처럼 2015년 현재까지, Regeneron는 뉴욕주의 945명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1,200명의 직원을 고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2007년에 682명을 고용한 것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4,000여명의 사람들을 고용했고, 그 중 대부분에 달하는 3,150명은 뉴욕에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 지도자인 **Andrea Stewart-Cousins**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부를 확장하고 우리 커뮤니티에 좋은 연봉의 일자리를 더 많이 가져오는 데 힘써주신 Regeneron Pharmaceuticals에 감사 드리며 이 문제에 리더십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께도 감사 드립니다. 새로운 경제에서 우리 뉴욕주가 성공을 하려면 현명한 투자를 지속해나가고 개척자적인 기업 및 기업인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Regenero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이 혁신적인 모델의 훌륭한 본보기로, 이 모델이 뉴욕주에서도 똑 같은 성공을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Thomas J. Abinanti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egeneron가 Tarrytown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주에서도 계속 성장해나가게 되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Regeneron은 혁신적인 의료 발전으로 끊임 없이 성공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똑똑한 인재들이 모이도록 힘써주신 Cuomo 주지사와 Regeneron과 같은 기업에게 감사 드립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CEO & 커미셔너인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속런 근로자 및 고등 교육을 받은 일꾼들이 있는 뉴욕은 Regeneron처럼 성공을 갈망하는 생명공학 및 제약회사에게는 좋은 곳입니다. 경제 발전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비전 덕택에 이 산업의 기업들은 Hudson Valley와 뉴욕주에서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공학 벤처 캐피털 대회

뉴욕주는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담은 East Coast 허브로 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세를 바탕으로 뉴욕주는 일련의 집중적인 투자 사업을 통해서 기업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투자를 통해서 뉴욕주는 **Upstate**에서 여러 다른 부문에 영향을 끼치면서 대도시 지역에서 창업회사와 일자리 증가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생명공학 산업의 더 큰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뉴욕주는 생명공학 산업에 중점을 둔 폭넓은 기반의 투자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은 여러 해에 걸친 벤처 캐피탈 대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대회는 가장 유망한 창업회사를 선발하고 이 회사가 뉴욕주 대학교들과 연구 실험실 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상업화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100만 달러에 달하는 연간 지원금은 매 대회를 거쳐 유망한 생명공학 전문 기업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Regeneron의 성공에 이르는 길을 따를 수 있는 기업들에 지원을 집중함에 따라 뉴욕주의 신생 벤처 투자 허브인 **New York Ventures**가 이 대회를 관리할 것입니다. **New York Ventures**는 벤처 캐피탈 대회 상을 자본 교환 투자로 처리하고; 기업들은 특정 기간 동안 뉴욕주에 본사를 둘 것을 서면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생명 과학 투자 프로젝트는 과학 또는 연구개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지적 재산권 보호, 시장 및 경쟁력 있는 연구 활동 수행, 규제 요건 조사, 상업용 시제품 제작 및 추가 자본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같은 성공적인 상업화에 필요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가 가능한 뉴욕주 기업은 다음 산업에 해당합니다:

- 의약 & 제약
- 의료 기기 & 장비
- 연구, 테스트 & 의학 실험
- 생명공학 관련 유통 업체
- 농업 원료 & 화학제품

New York Ventures 직원은 상업화 타당성, 기술 혁신 레벨, 기타 기술 및 사업 요소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생명공학 창업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할 것입니다.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고 최종 우승 기업 후보들이 나오게 되면 하루 동안 쇼케이스나 피치 대회에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피치 대회가 끝나면, 뉴욕주 생명공학 커뮤니티의 **New York Ventures** 산업 전문가가 우승 기업을 선정합니다.

혁신 투자 방식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사업계획서 대회는 첨단 창업회사를 **Buffalo**에 유치하고 최우수기업에게는 현금 상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43North** 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계획서 대회 **76 West**와 **GENIUS NY**는 이미 2015년에 열렸습니다. **Southern Tier**를 바탕으로 하고 올해 출범할 예정인 **76 West** 대회는 청정 기술 부문의 창업 회사 투자를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GENIUS NY**는 **Syracuse**를 중심으로 2016년 초에 출범할 것입니다. 이 대회는 데이터와 정보매틱스(informatics) 부문의 창업 회사 투자를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생명과학에 엄청난 지적 자본 및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미국의 주에서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연구 기금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운스테이트 지역과 뉴욕시만해도 9개의 주요 대학 의료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2014년, 생명공학 산업은 뉴욕주에서 41,554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뉴욕주 전체 경제의 75억 달러 또는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지적 자본과 대학 기반 연구 활동을 뉴욕주를 생명공학 부문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성은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는 이러한 연구를 상업화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민간부문으로 옮겨 경제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현재, 뉴욕주는 2014년에 생명공학 부문 일자리 창출에서 11위를 기록했으며, 연구에 있어서도 **New Jersey**와 **Pennsylvania**와 같은 주를 앞질렀습니다.

Regeneron 소개

1988년, Regeneron은 뉴욕시에서 바이오테크 창업회사로 발족하였습니다. 1989년, **Mario Cuomo** 주지사의 지도 아래 **Empire State Development**가 이 회사에 250,000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수년만에 뉴욕주는 이 투자로 300%의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현재 **Regeneron**는 뉴욕주 최대 바이오테크 회사이며 세계 5위의 바이오테크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Forbes Magazine**은 **Regeneron**을 전세계에서 모든 산업에 걸쳐 상위 5위의 혁신 기업 중 한 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 회사는 지난 5년 동안 **World by Science Magazine**가 선정한 상위 2곳의 **Biopharmaceutical Employers**로 선정되기도 했고 3년 연속 1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